

한국 고문헌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전망

The Project and Prospects of Old Documents Information Systems in Korea

강 순 애(Soon-Ae Kang)

목 차

- | | |
|-------------------------|--------------------------------------|
| 1. 서론 | 5. 4 검색정보시스템 |
| 2. 고문헌의 개념 | 6. 고문헌 정보시스템의 사례 |
| 3. 고문헌의 특성과 정리현황 | 6. 1 국립중앙도서관 국내학술자료 화상
정보 서비스 시스템 |
| 4. 고문헌 전산화의 범위와 제도적인 장치 | 6. 2 성균관대학교 고서/고문서 정보시스
템 |
| 5. 고문헌 정보시스템의 구축 | 7. 평가와 전망 |
| 5. 1 목록정보시스템 | 8. 결론 |
| 5. 2 해제정보시스템 | |
| 5. 3 원문정보시스템 | |

초 록

본 논문은 고문헌에 적합한 최선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고문헌의 개념, 특성과 정리현황, 전산화의 범위와 제도적인 장치, 정보시스템의 구축, 시스템의 사례, 평가와 전망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고문헌시스템의 구축에 있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정보전산망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목록정보, 해제, 원문, 검색정보시스템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개하였다. 사례분석에서는 현재 디지털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고문헌시스템과 자체적으로 DB를 개발하여 공용정보로 활용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고문헌정보시스템을 비교 평가하였으며, 고문헌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도서관에는 전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the matters to plan the best information systems in Korean old books. It analyzes: i) a range of definition of old books, ii) its characteristics and current state of processing the old documents, iii) the scope of automation and building up the library institution, iv) the construction of Korean old books information systems, v) its case study, and vi) the evaluation and vision of system. The old document information system have been organized on the basis of library networks systems with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as leader, its implemented system has the subsystem such as cataloging system, annotation system, full-text or image-based system, and retrieval system. In case study, it is suggested two examples which has been built in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and Sung Kyun Kwan university. Finally, it provides the evaluation criteria and vision for the library which designs the old document information systems.

1. 서론

우리는 오늘날 정보기술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모든 도서관의 장서는 한 곳에 소장된 자료가 아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동자료원이다. 우리가 가까운 미래에 구현하고자 하는 디지털도서관은 전자매체에 의해 자동화된 정보자원들을 전자네트워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원격접근 및 정보의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는 국가디지털도서관 계획사업을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첨단학술정보센터의 세 기관에 위임하고 1997년도에는 그 시범사업으로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연구개발정보센터, KAIST과학도서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5개 기관에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그 기관의 성격에 맞는 본문정보DB 구축사업을 위임하고 있다. 이중 국립중앙도서관에 위임된 사업은 소장고서 목록정보 6만건과 고서귀중본 본문 이미지정보 3,000책(450,000면)의 DB구축이다.

고문헌은 일부의 자료가 새로운 전자매체에 담겨 이용되고 있긴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통합된 시스템하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원격이용이 가능한 고문헌 정보시스템¹⁾을 구축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과제이다. 고문헌은 현대 문헌과는 달리

그 문헌을 관리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한 최선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그 문헌의 특성에 따라 다각도로 접근하여 검토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는 고문헌의 개념, 고문헌의 특성과 정리현황, 고문헌의 전산화의 필요성과 제도적인 장치, 시스템구축, 사례, 평가와 전망 등으로 전개하여 고문헌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예비적인 과제를 검토하는 선에서 머물고자 한다.

2. 고문헌의 개념

고문헌이란 무엇인가? 고문헌은 현대적인 성격의 문헌과는 다른 형태와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를 지칭한다. 고문헌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고서에 제한되어 쓰이지만 넓은 개념으로는 고서, 고문서, 기타 자료들을 포함한다. 그 중 고서의 동의어로는 古典, 典籍, 古籍, 古本 등이 있다. 古典은 보통 한나라나 시대를 대표할만한 예술작품(Classic)을 일컫지만, 여기서는 뒷날에 남을만한 옛 서적을 의미한다. 典籍은 책중의 귀한 책으로 여기는 등급이 있다. 첫째, 稀貴本으로서 드물게 볼 수 있는 책이요, 둘째, 貴重本으로서 중요한 문화재로 여겨지는 책이요, 셋째, 寶物로서 공식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책이요, 넷째, 國寶로서 고서중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1) 고문헌 정보시스템은 고문헌의 목록시스템, 해제시스템, 원문시스템, 검색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원격접근 및 정보의 전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인정받는 책이다. 古籍과 古本은 범칭 고서와 같이 쓰인다. 古文書의 동의어로서는 文券, 文契, 文記가 있는 데, 문권은 토지 문서, 노비 문서, 공문서, 차용증서 등에 쓰이는 용어이고, 문계는 차용증서에 주로 사용되었지만 노비 문서에도 쓰였다. 문서와 문계는 비슷하게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문기는 노비와 재산의 증급에 관한 문서에 주로 쓰인다. 문권, 문계, 문기는 주로 개인의 재산과 권리에 관계되는 사문서의 개념에 사용된 용어라 할 수 있고, 관청이나 공적인 입장에서 발급하는 문서는 공문 또는 관문서라고 하였다. 이들을 포괄하여 문서의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²⁾ 문서는 발급자와 수급자가 필수조건이며, 고대의 문서는 國王文書, 王室文書, 官府文書, 私人文書, 寺社文書, 書院文書, 道觀文書, 結社文書, 奉神佛文書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기타자료로는 글씨, 그림에 관한 자료가 주류를 이루며, 筆跡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들 자료의 범주를 정해보면, 지역적으로는 동양에 한정되고 언어는 한자를 비롯한 고대 한글, 일본어, 몽고어, 만주어, 청어 및 고대 동양의 여러 언어에 속하며 연대는 언어의 체계가 바뀐 1900-1910년의 이전이고, 고서의 경우에는 특히 裝訂의 체계가 동양 고유의 卷子本, 折帖裝, 旋風葉, 蝴蝶裝, 包背裝, 線裝에 제한된다. 한국의 고문헌은 중국의 학술과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적지 않지만, 한편 그것을 배경으로 우리의 독자적인 학술과

사상을 형성시킨 것도 적지 않으며, 외형적으로는 장정, 인쇄수단, 책지 등에 있어서 우리의 독자성을 가미하여 독특하게 발전시키면서 생산해왔기 때문에 한국문헌으로서의 개념을 뚜렷하게 형성시키고 있다.

3. 고문헌의 특성과 정리현황

고문헌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료가 지니는 언어, 연대, 형태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현대자료와는 완전히 구분되어 독자적인 분류체계와 목록체계를 사용하여 왔다. 대부분 고서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에서는 고문헌을 정리하여 고문헌목록을 발간하고 있다. 각 목록마다 분류와 목록기법이 많이 다르고 서지사항의 기술이 정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고서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는데는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도서관이 정리한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의 내용을 종합하면, 1970년대부터 고서정리를 시작하여 1997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책자형목록에 대한 것은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 서울은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도서관, 한국정신문화연구원도서관, 국회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를 비롯하여 건국대학교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중앙도서관, 동국대학교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중앙도서관,

2) 崔承熙, 韓國古文書研究. 城南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표 1〉 국내소재 고서목록, 해제, 색인의 현황

순번	기관명	목록명	발행사항	분류체계	목록체계	비고
	건국대학교 도서관	장서목록-한적종합판-	동도서관, 1984	서명의 가나다순	간략고서목록	22,000여책
	계명대중앙 도서관	고서목록	동도서관, 1987	DDC	백린고서목록규 칙, 구두법:ISBD	35,000여종(권)
	고대중앙도서관	석주문고목록	동도서관, 1973	개편사부분류법	고대고서 목록규칙	395종 1,309책
	고대중앙도서관	신암문고한적목록	동도서관, 1974	개편사부분류법	고대고서 목록규칙	1,612종 2,305책
	고대중앙도서관	해사문고목록	동도서관, 1974	개편사부분류법	고대고서 목록규칙	20종34책
	고대중앙도서관	경화당문고목록	동도서관, 1975	개편사부분류법	고대고서 목록규칙	1,143종 3,828책
	고대중앙도서관	화산문고한적목록	동도서관, 1976	개편사부분류법	고대고서 목록규칙	1,811책 7,358책
	고대중앙도서관	만송문고목록	동도서관, 1979	개편사부분류법	고대고서 목록규칙	4,899종 19,071책
	고대중앙도서관	귀중도서목록	동도서관, 1980	개편사부분류법	고대고서 목록규칙	3,930책
	고대중앙도서관	공량문고목록	동도서관, 1982	개편사부분류법	고대고서 목록규칙	18,264책
	고대중앙도서관	의암문고한적목록	동도서관, 1983	개편사부분류법	고대고서 목록규칙	5,873종 3만9천여책
	고대중앙도서관	한적목록(구장)	동도서관, 1984	개편사부분류법	고대고서 목록규칙	
	고대중앙도서관	한적목록종합색인	동도서관, 1985			10만6천여책
	고대아세아 문제연구소	장서목록	동연구소, 1974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도서해제	동연구소, 1971	서명의 가나다순		1910년 이전의 한국본도서중 선정 5,267종 29,015책
	국립중앙도서관	고서목록 1	동도서관, 1970	1945년이전 십진분류표	김치우편 고서목록규칙	1945년이전 6,229부 18,371책
	국립중앙도서관	고서목록 2	동도서관, 1971	1945년이전 십진분류표	김치우편 고서목록규칙	1945년이전 5,834부 20,126책
	국립중앙도서관	고서목록 3	동도서관, 1972	1945년이후 KDCP	김치우편 고서목록규칙	1945년이후 4,497부 19,988책
	국립중앙도서관	고서목록 4	동도서관, 1973	KDCP	김치우편 고서목록규칙	1945년이후, 4,000여종
	국립중앙도서관	고서목록 5	동도서관, 1980	KDCP	김치우편 고서목록규칙	17,000책 1945년이후 2,116종 5,962책
	국립중앙도서관	고서목록 6	동도서관, 1994	KDCP	천혜봉편	1980. 12-

순번	기관명	목록명	발행사항	분류체계	목록체계	비고
					고서목록규칙	1993. 12. 7,879종 18,442책
	국립중앙도서관	선본해제(필사본) 1	동도서관, 1970	1945년이전 십진분류표		회귀서 600여종
	국립중앙도서관	선본해제(필사본) 2	동도서관, 1971	1945년이전 십진분류표		필사본 400여종
	국립중앙도서관	선본해제(필사본) 3	동도서관, 1972	1945년이전 십진분류표		문집 220종
	국립중앙도서관	선본해제(필사본) 4	동도서관, 1973	1945년이전 십진분류표		문집 77종
	국사편찬위원회	고서목록	동위원회, 1983			19,363점중의 서간류 11,374점
	국사편찬위원회	고문서목록1	동위원회, 1993	등록일련번호순		서간류를 제외한 7,989점
	국사편찬위원회	고문서목록2	동위원회, 1994	등록일련번호순		
	국학자료보존회	한국전적종합목록1집:산 기문고목록: 이점노 소장	동보존회, 1974	사부분류법		
	국학자료보존회	한국전적종합목록2집:상 태문고목록: 상태 소장	동보존회, 1974	사부분류법		
	국학자료보존회	한국전적종합목록3집: 완수문고	동보존회, 1974	사부분류법		
	국학자료보존회	한국전적종합목록4집: 성암문고:조병순 소장	동보존회, 1975	사부분류법		
	국학자료보존회	한국전적종합목록5집: 인수문고:광거당 소장	동보존회, 1975	사부분류법		
	국학자료보존회	한국전적종합목록6집: 도남문고 등	동보존회, 1976	사부분류법		
	국학자료보존회	한국전적종합목록7집:	동보존회, 1978	사부분류법		
	국회도서관	한국고서종합목록	동도서관, 1978	서명의 가나다순		국내외 도서관, 개인, 기관, 단체 의 고서중 목록 으로 알려진 것. 문헌상으로 알 려진 것
	국회도서관	고서목록	동도서관, 1995	사부분류법		2,787종 13,962책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목록	동도서관, 1981	DDC 16판	동국대 고서목록규칙	5,674종 19,613책
	문화재관리국	한국전적종합조사목록 1집:대구직할시, 경상북도	동관리국, 1986	각 지역별 서명 의 가나다순		
	문화재관리국	한국전적종합조사목록 2집:충청남도	동관리국, 1988	각 지역별 서명 의 가나다순		
	문화재관리국	한국전적종합조사목록 3집:강원도	동관리국, 1990	각 지역별 서명 의 가나다순		
	문화재관리국	한국전적종합조사목록 4집:전라북도	동관리국, 1990	각 지역별 서명 의 가나다순		

순번	기관명	목록명	발행사항	분류체계	목록체계	비고
	문화재관리국	한국전적종합조사목록 5집: 안동시·군(상)(하)	동관리국, 1991	각지역별 서명 의 가나다순		
	문화재관리국	한국전적종합조사목록 6집: 광주직할시, 전라남도	동관리국, 1992	각지역별 서명 의 가나다순		
	문화재관리국	한국전적종합조사목록 7집: 부산직할시	동관리국, 1993	각지역별 서명 의 가나다순		
	문화재관리국	한국전적종합조사목록 8집: 경상남도	동관리국, 1994	각지역별 서명 의 가나다순		
	문화재관리국	한국전적종합조사목록 9집: 충청북도·제주도	동관리국, 1996	각지역별 서명 의 가나다순	김치우편 고서목록법	646종 3,204책
	부산광역시립 도서관	고서목록	동도서관, 1995	KDC		
	부산광역시립 도서관	고서목록	동도서관, 1995			33,088종 113,820책
	서울대학교 도서관	규장각도서한국본 종합목록 상·하	동도서관, 1981	사부분류법		
	서울대학교 도서관	규장각도서중국본 종합목록	동도서관, 1982	사부분류법		
	서울대학교 도서관	규장각도서한국본 종합목록, 상	보경문화사, 1994	사부분류법		
	서울대학교 도서관	규장각도서한국본 종합목록, 하	보경문화사, 1994	사부분류법		
	서울대학교 도서관	규장각도서한국본 종합목록, 색인	보경문화사, 1994	사부분류법		
	서울대학교 도서관	규장각한국본도 서해제: 경·자	동도서관, 1993	사부분류법		847종 3,849책
	서울대학교 도서관	규장각한국본도 서해제 1집: 집부1	동도서관, 1993	사부분류법		748종 3,518책
	서울대학교 도서관	규장각한국본도 서해제 3집: 집부2	동도서관, 1993	사부분류법		
	서울대학교 도서관	규장각한국본 도서해제 4집: 사부1	동도서관, 1993	사부분류법		
	서울대학교 도서관	규장각한국본 도서해제 5집: 사부2	동도서관, 1993	사부분류법		
	서울대학교 도서관	규장각한국본도 서해제 6집: 사부3	동도서관, 1993	사부분류법		사부총계: 10,860종 52,326 책의 1/4
	서울대학교 도서관	규장각한국본도 서해제 7집: 사부4	동도서관, 1993	사부분류법		
	서울대학교 도서관	규장각한국본 도서해제 색인	동도서관, 1987		천혜봉편고서분 류목록법	4,622종 38,693책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고서목록1	동도서관, 1981	사부분류법	천혜봉편고서분 류목록법	1,708종 6,421책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고서목록2	동도서관	사부분류법	천혜봉편고서분 류목록법	
	안동대학교 도서관	고서목록	동도서관, 1994	KDC3판		
	원광대학교 도서관	고서목록	동도서관, 1994		연세대고서목록 규칙	8,763종 65,400여책

순번	기관명	목록명	발행사항	분류체계	목록체계	비고
	연세대학교 도서관	고서목록1	동도서관, 1977	수정DDC	1985년제정의 연세대학교서목록 기술법	5,324종 18,892책
	연세대학교 도서관	고서목록 2	동도서관, 1987	수정DDC		2,277종
	이화여대 도서관	고서목록	동도서관, 1981	사부분류법		
	전남대학교 도서관	고서목록1	동도서관, 1990			
	전북대학교 도서관	고한적해제 제1집: 사부·집부	동도서관, 1982			3,250종 17,000여책
	충남대학교 도서관	고서목록	동도서관, 1993	사부개수분류법	천혜봉편 고서 분류목록법	12,465종 40,020책
	한국정신문화 연구원(문화재 관리국)	장서각도서한 국판총목록	동연구원, 1972	사부분류법	천혜봉편 고서 분류목록법	
	한국정신문화 연구원(문화재 관리국)	장서각도서한국판총 목록:보유판	동연구원, 1974	사부분류법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장서각도서한국본해제집1	동연구원, 1993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장서각도서한국본해제집	동연구원, 1993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장서각도서일본판총목록	동연구원, 1993			
	해군사관학교 도서관	한적목록	동연구원, 1977	고대한적분류 표:개수사부분 류법	해군사관학교고 서목록규칙	1,029종 4,982책

이화여자대학교중앙도서관 등이 목록을 완성하거나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는 계명대학교도서관, 안동대학교도서관, 원광대학교도서관, 충남대학교도서관, 전북대학교도서관, 전남대학교도서관, 해군사관학교도서관, 부산광역시립도서관이 자체적으로 목록을 완성하였다. 총체적인 규모로 목록작업이 진행된 것은 국학자료보존회와 문화재관리국이 주도하는 한국전적종합목록의 작업이다. 전자의 경우는 1974년부터 1978년 사이에 개인소장가가 지니고 있는 목록을 조사하여 완

성하였고, 후자의 경우는 1986년부터 1997년까지 전국적인 규모로 진행되어 9집까지 발행되었다. 제1집부터 9집까지의 내역을 <표 2>로 작성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위 <표 2>의 내용을 종합하면, 3개직할시, 36개시, 82개군, 11개면을 대상으로 하였고, 세별화하면 대학도서관이 17기관(해군사관학교포함), 시립도서관 1, 박물관 13, 연구소 2, 국민학교 2, 고등학교 1, 군청 4, 군청공보실 1, 학생회관도서관 1, 국악원 1, 서원 18, 향교 27, 사찰 11, 기념

〈표 2〉 한국전적종합조사목록 제1-9집까지의 현황

호 별	조사지역	조사대상 및 현황	총 계	문 헌 수
제1집	대구직할시·경상북도	대구직할시(1): 경북대도서관, 대구시립도서관, 호성여자대학교도서관, 개인(4), 경북(25): 구미시: 개인(2), 영주시: 개인(5), 영천시:개인(7), 경산군: 영남대학교도서관, 영남대학교박물관, 개인(1), 고령군:개인(2), 군위군:송덕관, 개인(3), 금능군: 개인(3), 달성군: 용연사,인홍서원, 개인(2), 문경군: 보양서원,합창향교, 개인(3), 봉화군: 개인(12), 상주군: 옥동서원, 개인(9), 선산군: 대둔사, 개인(4), 성주군:개인(6), 영덕군:개인(4), 영양군:개인(4), 영일군: 보경사, 영일군민속박물관, 청하향교, 개인(4), 영천군: 입고서원, 영풍군: 소수서원, 개인(5), 예천군: 신천서원, 개인(11), 울진군: 불영사, 개인(7), 월성군: 옥산서원, 독락당, 개인(4), 의성군: 비안향교, 개인(11), 청도군: 운문사, 적천사, 개인(1), 청송군:개인(3), 칠곡군: 송무사, 개인(3)	직할시(1), 시(3), 군(22): 대학도서관(3),시립도서관(1), 박물관(2), 서원(7), 향교(3), 사찰(6), 기념관(2), 서재(1), 개인(120)	총계:5,674종 19,613건 전적:3,358종 16,915책, 書跡: 384종 704, 고문서:1,932종 1,994건
제2집	충청남도	공주시:공주군청문화정보실, 개인(1), 대전시: 문충사, 연경국악원, 충남대학교도서관, 충남대학교사학과, 개인(5), 온양시: 온양민속박물관, 철안시: 개인(1), 공주군: 충현서원, 개인(2), 금산군: 금산향교, 진산향교, 개인(2), 논산군: 개인(1), 당진군: 당진향교, 개인(1), 보령군: 남포향교, 보령향교, 개인(2), 부여군: 석성향교, 개인(3), 서산군: 태안향교, 개인(1), 서천군: 비인향교, 서천향교, 연기군: 개인(1), 예산군: 대흥향교, 덕산향교, 예산향교, 예덕보정상유품전시관, 향천사, 수덕사, 개인(2), 천원군: 목천향교, 직산향교, 청양군: 모덕사	시(4), 군(12): 대학도서관(1), 학과(1), 군청공보실(1), 국악원(1), 박물관(1), 서원(1), 향교(14),기념관(3), 사찰(2),개인(22)	총계: 7,785종 28,114건. 고문서: 639종 663건
제3집	강원도	강릉시:개인(6), 동해시:개인(3), 춘천시: 강원대학교박물관, 강원도향토박물관, 춘천향교, 태백시:개인(1), 삼척군:영은사, 개인(1), 영월군: 개인(2), 정선군: 정선향교, 개인(2), 철원군: 개인(1), 춘성군: 천전국민학교, 평산신씨대종중, 송덕사, 개인(3), 평창군: 개인(7), 홍천군: 홍천군청, 홍천향교, 개인(3), 화천군: 원천국민학교, 개인(2), 횡성군: 개인(2)	시(4),군(9): 국민학교(2), 박물관(2), 향교(2), 군청(1), 종중(1), 기념관(1), 사찰(1), 개인(34)	총계:1,501종 7,756건. 전적: 1,386종 6,390책. 고문서: 115종 1,366책
제4집	전라북도	이리시: 원광대학교도서관, 개인(1), 전주시: 전북대학교도서관, 전북대학교박물관, 개인(3), 고창군: 현곡서원, 흥덕향교, 개인(7), 김제군:개인(3), 부안군: 개인(2), 완주군: 개인(1), 정읍군: 무성서원, 개인(2)	시(2),군(5): 대학도서관(2),박물관(1),서원(2),향교(1),개인(19)	총계: 3,442종 20,000건. 전적:3,406종 17,908책. 고문서:36종 2,092장

호 별	조사지역	조사대상 및 현황	총 계	문 헌 수
제5집	안동 시·군 (상· 하)	안동시: 안동대학교도서관, 개인(7), 안동군(12): 풍산읍: 개인(11), 길안면:개인(7), 녹전면: 개인(2), 도산면: 개인(5), 북후면: 개인(4),서후면: 개인(4), 예안면: 개인(7), 와룡면: 개인(3), 일직면: 개인(9), 임동면: 개인(17), 임하면: 개인(9), 풍천면: 개인(12)	시(1), 안동군:읍(1), 면(11): 대학교도서관(1), 개인(88)	총계:33,162 전적: 30,467 고문서: 2,695
제6집	광주직 할시· 전라남 도	광주직할시: 광주시립박물관, 광주학생회관도서관, 전남대학교도서관, 전남대학교박물관, 조선대학교도서관, 개인(5), 목포시: 목포시사, 순천시: 개인(1), 강지군: 개인(4), 고흥군: 개인(1), 구례군: 개인(2), 담양군: 담양향교, 개인(1), 보성군: 보성향교, 오층사, 개인(3), 승주군: 개인(1), 신안군: 개인(1), 여천군: 개인(2), 영광군: 개인(1), 영암군:대동계사, 개인(3), 장성군:고산서원, 죽림서원, 필암서원, 개인(7), 장흥군:개인(4), 해남군: 해남향교, 대흥사(서산대사유물관), 개인(5)	직할시(1), 시(2), 군(13):대학교서관(3),광주학생회관도서관, 박물관(2), 서원(3),향교(3), 기념관(2), 개인(41)	총계: 24,779 전적: 21,210, 고문서: 3,569
제7집	부산직 할시	부산시: 동의대학교도서관, 부산대학교도서관, 부산교육대학교도서관, 경성대학교박물관, 부산시립박물관, 부산여자대학교박물관, 경성대학교향토문화연구소, 부산여자대학교가야문화연구소, 동래여자고등학교, 동래향교, 충열사, 개인(1)	직할시(1): 대학교도서관(3), 박물관(3), 연구소(2), 고등학교(1), 향교(1), 기념관(1), 개인(1)	총계:4,375종 16,901건 전적:4,365종 16,828책, 고문서: 10종73장
제8집	경상남 도	김해시: 수로왕능, 개인(1), 마산시: 구암서원, 개인(2), 삼천포시: 대방사, 울산시: 개인(1), 진주시: 개인(3), 진해시: 해군사관학교, 개인(1), 창원시: 개인(1), 충무시: 충열사, 개인(2), 거제군: 거제향교, 개인(3), 거창군: 개인(3), 고성군: 옥천사, 개인(3), 김해군: 개인(2), 남해군: 남해군청, 화방사, 개인(5), 밀양군: 예림서원(1), 개인(14), 사천군: 경백서원, 구계서원, 사천군청, 사천향교, 개인(1), 산청군: 단성향교, 덕천사원, 도천서원, 개인(2), 양산군: 양산군청, 의령군: 의령향교, 개인(2), 진양군: 청곡사, 창녕군: 개인(3), 창원군: 성구사, 개인(1), 함안군: 추모재, 개인(3), 함양군: 개인(1), 함천군: 함천중학교, 개인(1)	시(8), 군(16): 사관 학교(1), 군청(3), 서원(5), 향교(4), 중학교(1), 왕릉(1), 사찰(2), 기념관(1), 서재(1), 개인(56)	총계:5,310종 18,974건, 전적:5,176종 18,318책, 고문서: 134종 656장
제9집	충청북 도·제 주도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교육대학교도서관, 청주교육대학교박물관, 청주대학교도서관, 충북대학교도서관, 충주시: 충열사, 충주유물전시관, 괴산군: 개인(1), 음성군: 평산신씨종중, 개인(3), 제주도: 서귀포시: 개인(6), 제주시: 제주대민속박물관, 개인(2), 남제주군: 개인(3), 북제주군: 남읍민속관, 애월면서부유림회, 개인(8)	시(4), 군(4): 대학교도서관(3), 박물관(2), 기념관(2), 유림회(1), 종중(1), 개인(23)	총계:1,110종, 5,176건(충북: 719종 3,972건, 제주도: 391종 3,972건

관 12, 유림회1, 종중2, 서재 2, 개인 404로 드러났다. 서울시를 제외하면 전 지역이다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이외에도 국외에 소장된 고서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주축이 되어

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목록을 낸 것은 문화재관리국, 여강출판사, 한국서지학회이다. 이들 목록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의 내용을 보면, 목록은 8종이

〈표 3〉 국외소재 고서목록의 현황

기관명	목록명	발행사항	분류체계	목록체계	기타
문화재관리국	일본소재 한국전적목록	동관리국, 1991			
여강출판사	일본소재 한국고문헌목록1	동출판사, 1990			
여강출판사	일본소재 한국고문헌목록2	동출판사, 1990			
여강출판사	일본소재 한국고문헌목록3	동출판사, 1990			
여강출판사	일본소재 한국고문헌목록4	동출판사, 1990			
한국서지학회	해외전적문화재 조사목록: 하합문고 소장목록	동학회, 1993	사부분류법	천해봉고서 분류목록법	720여종
한국서지학회	해외전적문화재 조사목록: 미국칼럼비아대학동아도서관 소장 한국목록	동학회, 1994	사부분류법	천해봉고서 분류목록법	817종 2,235책
한국서지학회	해외전적문화재 조사목록: 미국BERKERY대학 동아도서관 ASAMI문고	동학회, 1996	사부분류법	천해봉고서 분류목록법	고서: 839종 4,013책, 탁본: 155종

이루어졌는데,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해 내기에는 이제 시작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국내는 총체적인 규모로 책자형목록이 이루어진 반면에 국외는 아직 시작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산화의 기초단계가 목록의 전산화라고 한다면, 우선 국내소장 고문헌의 책자형목록이 총체적인 규모로 이루어지므로서 전산화의 기초는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를 기본으로하여

국가고문헌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종합목록의 전산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의 선행작업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1992년 12월에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에 관한 연구-고서용포맷』과 『한국자동화목록법에 관한 연구-고서용기술규칙』을 출간하였는데, 1998년 봄에는 이의 KS 지정을 위한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우선 고서목록의 전산화는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4. 고문헌 전산화의 범위와 제도적인 장치

고문헌의 양이 총체적으로 얼마나되는지 그 규모를 밝히기는 어렵다. 해방후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 기관별로 목록 또는 해제 작업이 이루어졌고, 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국정신문화연구원, 민족문화추진회, 세종실록기념사업회 등을 중심으로 解題, 標點, 注釋, 影印, 飜譯, 索引 등의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일부분에 불과하다. 전산화의 필요성이 자료의 축적과 체계화에 있다고 본다면, 일차적으로는 고문헌의 전산 종합목록이 작성되어야 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료의 선별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해제, 표점, 주석, 영인, 번역, 색인작업에도 방법상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제작업은 도서관에서 추진하는 국가고문헌화상정보서비스시스템에는 목록정보와 아울러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할 것으로 여겨진다. 표점, 주석, 영인, 번역, 색인도 중요한 항목들인데, 이들은 현 단계의 도서관의 전산화에서는 병행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므로 본 연구범위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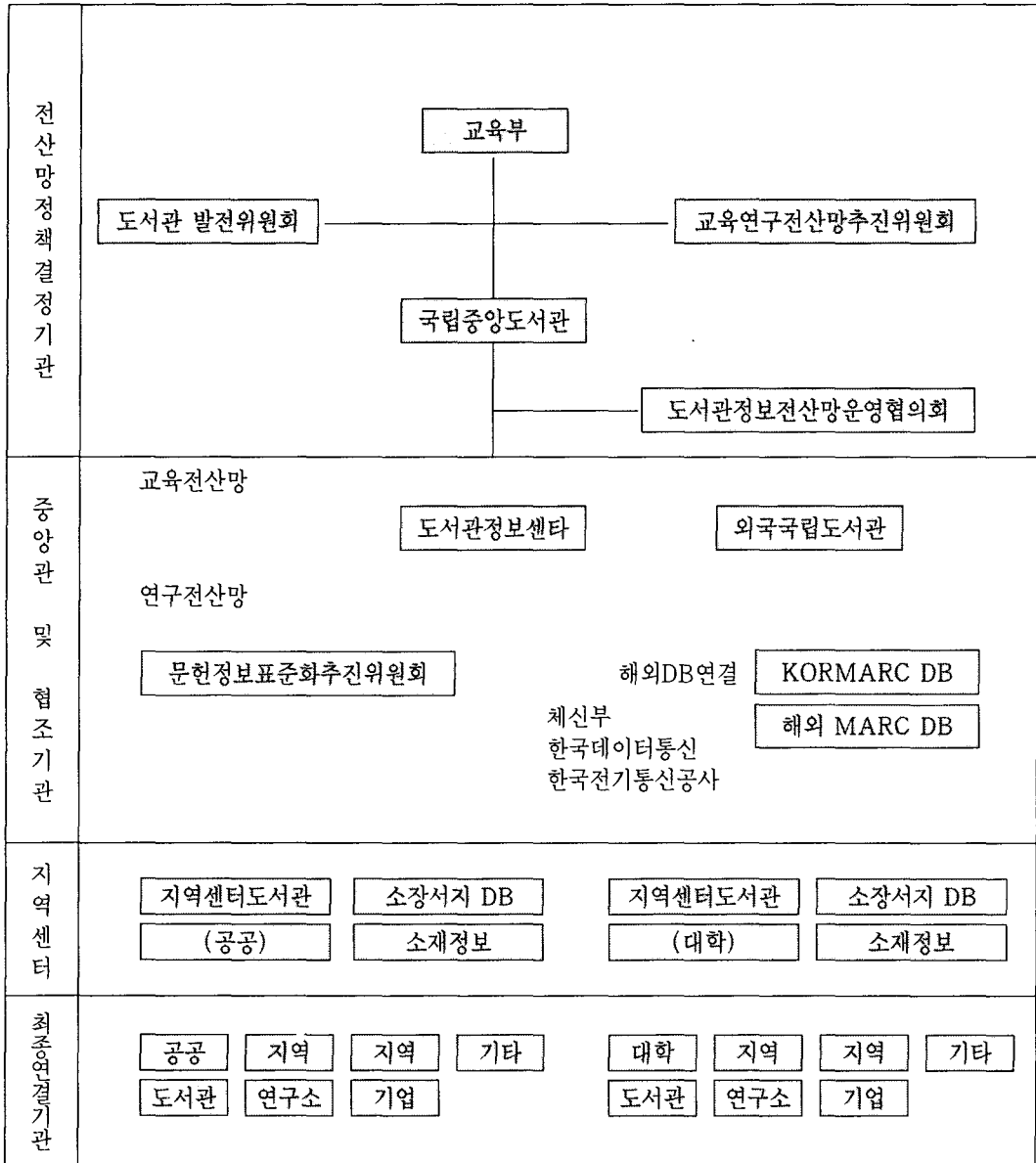
위의 정리현황에서 살펴본 바로는 일차적으로 책자형의 목록은 거의 마무리 단

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자료를 전산화하여 유용한 정보로 대체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우선, 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산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기관을 중심으로 각 기관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일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일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관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전산망³⁾ 중 도서관망의 중심이다. (KOLIS-NET)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고서이외의 한국본에 대해 전산화의 기술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고서에 대해서도 금년 하반기에는 고서용포맷과 기술규칙을 KS로 제정할 예정에 있고, 일부자료는 화상정보서비스시스템을 개발하여 웹을 통한 목록, 해제, 원문정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고문헌의 전산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도서관정보전산망 추진체계도에 의거하되(그림 1), 위의 책자형목록을 발간한 도서관을 회원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와같이 국립중앙도서관이 전산망의 중앙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각 지역센터의 회원도서관들이 그 지역권을 중심으로 분담전산목록시스템을 구현하면 효율적인 고문헌목록전산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 교육전산망은 국가기간전산망중의 하나이며 이중 초기단계는 교육망과 연구망을 추진하여 여건이 조성되면 단일망으로 운영되도록 계획되고 있다. 이에 대학전산화, 도서관망, 교육행정망으로 구성되는 데, 도서관망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1〉 도서관 정보전산망 추진체계도 ⁴⁾



둘째, 고문헌의 전산화는 목록, 해제, 원문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그쳐서는 안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책자형 및 전산목

록과 해제가 상당한 수정과 보완이 있어야 하고, 내용의 표집, 주석, 색인, 번역 등의 후속작업과 연구가 뒤따라야 하므로

4) 방승양, 학술정보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안. 1994년도 학술연구조성비 교육정책특별과제보고서(1995). P.14

이의 선별적인 계획을 수행할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셋째, 고서 이외에 고문서와 筆跡을 전산화할 수 있는 목록규칙안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의 개발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위임하도록 한다.

넷째, 국가적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한국학, 전산학, 문헌정보학(서지학)을 전공한 연구진들이 등용되어 이분야를 조직하고 체계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진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가적인 지원이 합일되어야만이 고문헌의 현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5. 고문헌 정보시스템의 구축

고문헌의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려면, 하위 서브시스템으로서는 목록시스템, 해제시스템, 원문정보시스템, 검색정보시스템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들 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반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1 목록정보시스템

고문헌의 목록전산화를 위해서는 ISBD와 MARC의 구조설계안을 기본지침으로 한다. ISBD는 대체로 ISBD(M), ISBD(S), ISBD(NBM), ISBD(CM), ISBD(MUSIC), ISBD(Older books),

ISBD(G)등이 서양에서 출판되었다. 고문헌의 전산화에 있어서 단행본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규칙과 포맷이 제정되었으나 고문서와 筆跡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여기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고서는 ISBD(M)의 원리를 준용하여 변형 수정하여 사용하되, 고서가 지니는 자료적인 특성을 지녀야 함으로 서명, 저자, 간사사항, 형태, 주기사항에서의 구비여건이 필요하다.

서명기술사항의 출처로서 신간서는 흔히 표제지를 근거로 삼고 있으나, 고서는 표제지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에 대신하는 것이 卷首題이다. 권수제이외에도 권미제, 서·발제, 목차앞 서명, 제첨, 판심제 등이 있고, 근간된 것 중에는 표제·裏題와 경우에 따라서는 판권제까지도 있다. 그러나 권수제를 으뜸정보원으로 삼는 이유는 이 서명은 다른 곳에 기재된 서명보다 가장 완전한 정식서명이며, 후세인이 재간하거나 전사할 때도 이 권수제만은 그대로 충실하게 옮겨 쓰고 있어, 동일서라면 어느 판을 막론하고 서명이 일정하기 때문이다.⁵⁾ 그 외의 서명은 권수제와 같은 것도 있지만, 임의로 간략서명을 택하고 있는 것이 적지 않아 서명이 다른 것을 얼마든지 발견 할 수 있다. 단 권수제마저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할 때는 으뜸정보원과 부차적인 정보원에서 조사하여 기술하되, 그 부분은 각괄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 정

5) 佐治繁, 本邦書名ノ一卜一書誌學的考察ノ若干--(2) 圖書館研究, 4. 昭和6(1931) P.425-435.

보가 모두 부적합하다면, 부득이 참고자료 또는 다른 문헌에서 조사하여 보충되어야 한다. 이 경우는 부분 또는 전체를 괄괄호로 묶어야 한다. 고서에서는 불완전한 서명이 많아 다른 문헌을 참조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또 고서에 나타나는 관제는 대부분 본서명의 일부로 되어 있어 신서와 다르게 처리되어야 한다. 고서의 서명 중의 또하나의 특징은 異名同書가 많아서 이에 유의하여야 하고, 고서를 많이 다루는 곳에서는 이명동서집람표를 만들어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저자사항은 그 기술방법이 다양하다. 저작의 종류가 著, 撰, 造, 編(또는 纂, 修), 輯(또는 輯), 補(또는 增補), 校(校訂), 注(註 또는 疏), 批(또는 評), 譯, 節錄, 記, 縣吐(標點 또는 訓點), 書, 畫, 刻 등으로 다양하여 이의 기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혹시 책에 그 종류의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저작자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補記하여야 한다. 또한 고서에서는 개인저자 다음에 역조표시를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 역조표시는 저자의 국적을 표시하는 데 필수적이기도 하지만, 동양에서는 학술전반에 걸쳐 역조를 기준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편리성도 도모할 수 있다.

판사항은 版次와 판의 명칭의 표시이며 이는 동저작의 간행의 순서와 異版을 식별시켜주는 구실을 한다. 판차는 첫판 이

후 연속적으로 간행된 여러 판에 대한 선 후 순서로서 근간된 고서의 경우는 초판, 재판, 증보판을 의미하고, 그 이전의 고서에서는 원각(간) 또는 초간(초각), 중각(중간) 또는 후각(후간), 증보, 번각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판의 명칭은 근간된 고서에서는 영인판, 축쇄판, 한정판, 보급판을 의미하고, 이전의 고서는 刊刻의 성질에 의한 판의 명칭⁶⁾ 또는 판본의 명칭⁷⁾을 적용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 初刻, 重刻, 後刻 등의 용어를 쓸 수 있지만, 그 표시가 너무 막연하여 후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판의 명칭은 목판본, 목활자본, 금속활자본, 필사본, 외국간행본, 영인 또는 복제본으로 나누고 각 명칭을 더 구체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간사사항은 간사지, 간사자, 간사년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 고서의 대부분은 출판사항의 기록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근간된 고서는 표제지와 판권지, 그 이전에 간행된 고서는 木記, 刊記, 印記, 寫記, 序文, 跋文 등을 근거로하여 기재한다. 간행연도의 표시방법에 있어서 신서는 서력기년을 중심으로 표시하지만, 고서는 년호에 의한 기년, 즉위기년, 干支기년, 간지의 고갑자에 의한 기년, 간지의 특수기년, 갑자기년, 건국기년, 둘이상의 간행년, 序·跋年, 추정연도, 후쇄문제, 필사연도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기재해야 한다.

형태사항은 신서와 간략한 양식과는 다

6) 金敏甫, 圖書編目學, 臺北: 正中書局, 民國42(1953) PP. 119-120.

7) 屈萬理, 中文書籍目錄板本項著錄舉例, 大陸雜誌, 4-6, 民國41(1952) P.190-192. ; 昌彼得, 中文書籍目錄板本項著錄舉例增補, 大陸雜誌, 4-9, P. 351.

르게 장정, 권책수, 삽도류 및 판식, 책의 크기, 딸림자료가 그 대상이 된다. 이의 기술은 단행본에 적용되는 면·장수 및 책·권수 즉 물리적인 수량과 삽도, 크기 그리고 딸림 자료 등의 네 범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이는 비도서적의 지도, 악보, 음악기록자료, 슬라이드, 마이크로 폼 등의 비도서를 기술하고 있는 ISBD(NBM)의 특수기록자료의 형식

을 참조하여 해결해야만 한다.

주기사항은 서명과 저자사항, 판사항, 출판사항, 대조사항, 총서명 등에서 기록하지 못한 부분의 부가적인 기입이나 구체적인 정보를 기술 하고자 할 때 필요하다. 고서는 신서와는 달리 자세한 서지적 정보 내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서는 반드시 지시어를 내세워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서명, 저자, 간사사항, 형

〈그림 2〉 가변장입력화면 (신규자료인 경우)

1996년 7월 16일 火	K O L A S	
관리구분 :OM	등록번호 :100	가변장입력
..... 1 2 3
..... 4 5 6
..... 7		
nwm w%		
005960716142030%		
008960716s1847 ko c kor %		
053 ▼aOL100%		
056 ▼a古810,819%		
090 ▼a古810,819%▼b이366ㄴ%		
1001 ▼a이전인▼f(조선)		
24510 ▼a潛溪先生遺稿, 一名, 潛溪李先生文集/ ▼d李全仁(朝鮮) 著%		
250 ▼a後期校書館印書體鐵活字本%		
260 ▼b章山書院, ▼c憲宗13(1847)%		
300 ▼a線裝本1冊(120張): ▼b 上下雙邊, 半郭 18.7×15.4 Cm., 有界, 半葉10行20字, 小黑口,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c 25.7×20.0Cm.%		
3500 ▼bw50000%		
50010 ▼d版心題: 潛溪遺稿%		
50000 ▼c序: 崇禎四己亥(1839)…洪直必▼c跋: 崇禎四丁未(1847)…姜泰重%		
50000 ▼z刊記: 崇禎紀元後四丁未(1847)章山書院開刊%		
650 ▼a문집-▼y조선-▼z한국		
653 ▼a잠계선생 ▼a유고%		
740 0 ▼a잠계이선생문집%		
740 0 ▼a잠계유고		
정리 목록완성 카드 색인작성 장비 KORMARC수정 MASTER작성 MARC반입		
실행 : F10	앞데이터: F5	다음데이터: F6
		구분자작성: F9
		종료:ESC

태사항, 서지내력, 소장본, 목차, 합철 등에 관한 상세한 주기를 필요로 한다.

이들 구비여건을 갖추어서 한국자동화 목록법-고서용 기술규칙-과 고서용 MARC체재에 의해 작성한 목록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

5. 2 해제정보시스템

고문헌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해제는 필수요건이다. 고문헌은 긴 시간을 두고 생산·유통되었고, 각 시대의 학술·문화적인 성격에 따라 문헌의 내용과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되었으며, 시대가 오래될수록 전해지는 문헌이 희귀하여 발굴되는 문헌자체가 중요한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고문헌의 해제에는 편찬자 및 그들의 학문적인 배경, 권수, 내용의 개요와 성격, 학설의 추이, 학문의 평가, 형태적인 특징과 관련한 장정의 시대적 특징, 刊·寫의 종류, 異版의 차이, 版式, 지질, 소장인 등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해제정보시스템은 목록 정보와 연결하여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5. 3 원문정보시스템

원문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에는 텍스트 형식으로 축적하는 방법과 이미지(그래픽 형식)형식으로 축적하는 원

문이미지 DB가 있다. Full-text DB를 구축하는 방법에는 기존의 모든 원문을 키보드로 입력하여 아스키(ASCII) 코드로 저장하여 텍스트 응용기법을 사용하는 방법과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아스키 코드로 변환시키는 방법이 있다.⁸⁾ 아스키코드 기반의 Full-text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은 새로운 문헌이 입력되면 문헌에서 나타나는 단어를 기반으로 색인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되며, 원문의 가공과 편집이 용이하여 다양한 유형의 매체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원문헌을 아스키 코드로 변환시키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가장 일차적인 수단인 원문의 재입력은 막대한 시간과 인력이 소비되며 입력의 정확성이 보증되지 못하며, OCR 소프트웨어의 인식율이 완전하지 않아서 에러의 수정을 위한 부차적인 작업절차가 따른다. 이외에도 아스키코드로 입력된 문헌은 문헌이 전달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표현하지 못한다. 따라서 어떤 문자열이 제목인지, 아니면 저자인가를 컴퓨터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⁹⁾ 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헌의 구조를 표시하고 태그를 붙이는 것이 마크업시스템인 데, 이의 대표적인 것이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과 HTML(Hypertext Transfer Markup Language)이다. SGML은 개괄적인 마크

8) 유사라, 멀티미디어 정보 관련 기술과 표준안에 대한 고찰, 정보관리학회지 제13권 제2호, 1996.12. PP. 55-68.

9) 한상완 등, 국가디지털도서관 구축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1996. PP. 77-79.

업언어로서 1986년10월에 데이터의 기술, 모형화, 그리고 상호교환을 위한 국제적인 표준으로서 채택되었으며, 목차, 제목, 본문, 주석, 장, 초록 등과 같이 문헌요소의 속성을 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기존의 검색시스템에서 접근이 되지 않았던 구조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징을 가지며, 학위논문, 단행본, 기사논문 등 문헌의 구조가 틀린 문헌에 대해 각각 DTD(Document Type Definition)를 따로 개발할 수 있어 어떤 문헌이라도 그 논리구조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¹⁰⁾ HTML은 SGML에 기반을 둔 하부집합으로서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의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그래밍언어로 하이퍼텍스트의 원리¹¹⁾에 의거하고 있다.

고문헌의 원문시스템을 Full-text DB로 구축하는 경우 한문과 한글 옛글자가 많아서 입력을 위한 선행작업으로서 문자의 표준화와 변환 소프트웨어의 지원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아직도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전산 한자의 통합운동은 1988년 4월 ISO IEC /SC2 / WG2(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the International Electronical

Commission/ subcommittee2=Character sets and information coding/Working Group2) 결성되면서 시작되었다. 한중일 삼국이 CJK/JRG(China, Japan, Korea Joint Research Group)라는 국제회의 조직을 결성하여 삼국의 한자를 기본 문자기판(Basic Multi-Lingual Plane)에 통합형식으로 배치하고자 하였다. 제1차회의를 1990년에 개최하여 1996년까지 CJK/JRG의 후속조직인 IRG회의를 통산하면 12차례나 걸친 회의를 거듭하였다. 이러한 노력하에 1993년에 드디어 CJK 통합한자세트 20,902자를 편성하여 국제 표준문자코드집(ISO/IEC IS 10646-1:1993(E), Universal Multiple-Octet Coded Character Set(UCS)- Part 1 : Architecture and Basic Multilingual Plane, First Edition, Geneve : ISO /IEC,1993)이 국제표준으로 선포되었다. 이중 한국 한자는 KS C 5601과 KS C 5657의 7,744자가 수록되었다. 이중 중출자 268자를 빼면 7,476이다. 최근에 와서는 보완용 한자세트(IRG에서는 Internal & Horizontal Supplementation) 7,912자와 추가한자세트(IRG에서는 Vertical Extention) 1,836자를 더 추록하고자 노력하여 모두(7,476+7,912+1,836=17,244

10) Eun-Gyoung Seo & Sarah Yoo, The Conceptual Model Development of the Virtual Library, Proceeding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the 21st Century, 1996, pp. 137-145.

11) 노정순·이효숙, 정보와 뉴미디어,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96, pp. 40-42 : 하이퍼텍스트 검색시스템은 단일문헌에서 서로다른 문헌간에 연결된 링크를 통해 비연속적으로 원하는 위치에 접근이 가능하고 원하는 정보를 집할 수 있다. 링크에는 사용되는 내용과 같은 상호참조, 인용, 각주, 해제, 색인어, 용어의 정의 등이 포함된다. 이 시스템에서는 또한 전산처리된 텍스트, 그래픽, 비디오, 음성 등 다양한 정보로의 연결이 가능하고 이용자는 대화형의 컴퓨터시스템에서 계층화된 링크를 사용하여 점점 더 상세한 수준의 탐색을 할 수 있다. 고속통신과 컴퓨터의 테크놀로지 개발로 인터넷의 WWW과 연결되어 강력한 탐색도구로 활용되며, 어떠한 형태의 정보에도 연결이 가능하고 연결된 정보는 웹 브라우저(Web browser)를 통해 제공한다

자) 17,224자를 표준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중 보완용 한자세트가 1996년 8월 12일 캐나다의 쾌백회의에서 투표용초안 (pDAM=Proposed Draft Amemdment)으로 접수되었다. 쾌백회의 이후의 국제분위기는 완성형시스템으로는 5만자 (이체자를 포함하여 78,000자로 추산하는 이도있음)가 넘는 한문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조합형 한자안을 검토하고 있는 추세이다.¹²⁾ 모든 문헌을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인력의 투자가 있어야 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OCR 소프트웨어의 인식율을 높여 중국한문, 일본어, 한국어를 모두 이미지로 읽어 들여 아스키코드로 변환하는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다.(다니엘텍 회사의 MY-ORDER PERFECT FOR WINDOWS의 한국보급판) 원문이미지 시스템은 1960년대 후반 마이크로필름을 사용하는 사무자동화에서 출발하여 1980년대 광디스크의 발전과 함께 활성화 되었다. 문헌의 내용을 이미지로 인식하는 시스템으로서 문헌의 페이지 단위 이미지는 온라인으로 연결된 광디스크나 마그네틱 디스크에 저장된다. 이는 영상이지지로 저장되기는 하나 문헌에 나타나는 문자들은 컴퓨터내의 코드로 인식되지 않는다.¹³⁾ 모든 이미지 데

이터는 대규모의 컴퓨터공간이 요구되고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될 때는 고해상도를 요구하므로 스캐너가 이미지를 읽을 때는 70dpi(dot per inch)-1,000dpi 등의 여러 핏셀 수준을 적용한다. 흑백은 보통 가속성이 보장되는 200dpi를, 256컬러는 원문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1000dpi를 기준으로 한다. 이들 자료는 저장과 네트워크 전송을 위해 압축기술을 사용하는 데, 이를 지원하는 표준형식에는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와 GIF(Graphics Interchange Format)가 있다.¹⁴⁾ 국내에서는 원문 이미지 정보의 압축과 전송을 위한 방법으로서는 저장량이 크기는 하나 해상도가 좋은 TIFF방식을 따르는 추세이다.

5. 4 검색정보시스템

위에서 구축된 목록, 해제, 원문시스템을 분석하여 조직해 두었다가 정보에 대한 요구가 발생할 때 적합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목록시스템은 구축될 때 토탈시스템으로 개발되어 이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고안되는 데 이것이 온라인열람목록시스템(OPAC)이다. 이들 서지정

12) 玄圭燮 外, 漢字標準化를 위한 우리나라 使用漢字에 관한 研究 - 국제표준화기구의 한자코드 표준화과정을 중심으로 -, 서울 : 국립기술품질원, 1996.

13) 한상완 등, 국가디지털도서관 구축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1996, PP. 76-77.

14) 유사라, 멀티미디어 정보 관련 기술과 표준안에 대한 고찰, 정보관리학회지 제13권 제2호, 1996.12, PP. 60-62.: TIFF 방식은 파일-옵셋기저의 이미지 데이터를 압축저장시킬 수 있는 파일 포맷 형식이다. TIFF는 Aldus & Microsoft 회사에 의해 개발되어 Adobe Systems, Inc.로 통합되었으며 여러 플랫폼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고, 여러 이미지 처리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되도록 설계되었다. 최근에는 새로운 교환표준으로 'GeoTIFF'가 있다. GIF방식은 1987년 CompuServe에 의하여 여러 다른 플랫폼에서 이미지 상호교환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GIF87a라는 초기 형식은 256색상을 지원하였고, GIF89a의 새 버전은 멀티미디어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90년의 버전에는 간단한 애니메이션과 텍스트처리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보는 저자, 서명, 분류, 키워드, 주제명, 출판사, ISBN, ISSN 등록번호로 탐색이 가능하다. 이들 자료의 검색방식은 메뉴방식의 검색화면으로 제시되며, 각 항목은 개별검색과 조합검색이 가능하고 필드내에서는 블리언 연산자(&(and), I(or), &!(not))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원문검색정보시스템은 텍스트 검색시스템과 이미지영상 검색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다. Full-text DB 검색시스템은 문헌 전문에 출현하는 불용어를 제외한 모든 용어에 대해 자연어 또는 통제어 형식으로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이다. 자연어 검색시스템은 문헌내용의 중요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나 문구 등을 문헌에 나타난 그대로 검색어로 채택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각 용어들이 통제를 받지 않고 검색언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 여러개의 다른 용어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최근에는 효율적인 검색을 위해 어휘통제를 위한 시소러스¹⁵⁾를 이용한다. 이의 검색기법으로는 블리언 논리검색의 기법을 사용하는 데, 최근에는 문헌의 등급을 매기기위해 퍼지검색을 활용하는 곳도 있다. 텍스트 검색시스템의 파일구조는 효율적인 검색을 위해 도치파일(Inverted File)구조를 사용하기도 하고, 검색시간을 단축시키면서 다양한 검색기법을 적용하기위해 SGML을 사용하기도 한다. 후자의 구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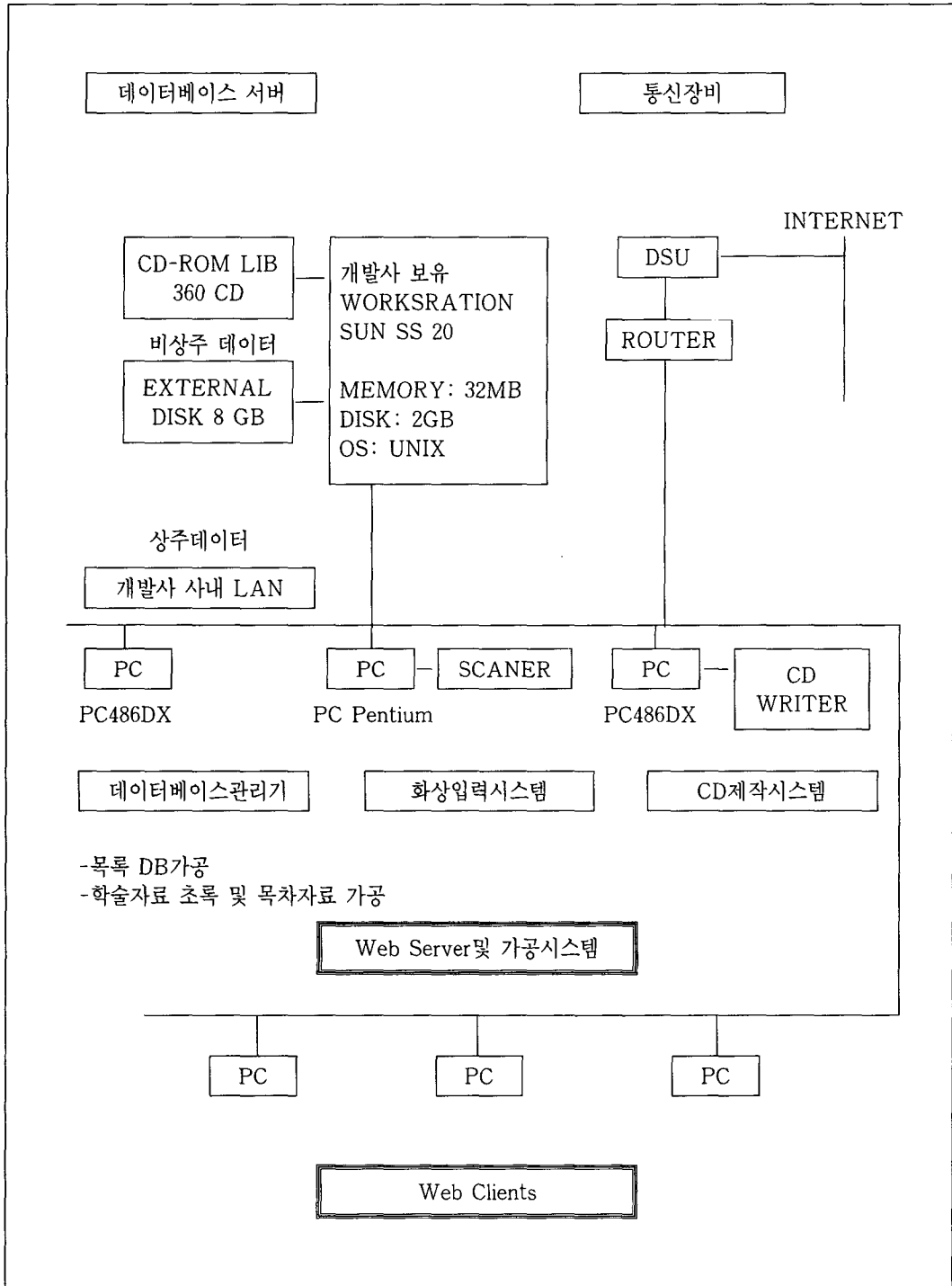
이점은 문헌의 표준화와 구조화로 문헌의 전송에 오류가 없고, 문헌요소간의 관계와 내용에 대한 포인터를 포함하는 문헌요소 테이블을 조직하여 이를 검색의 접근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출력의 범위를 텍스트 내용의 일부로 제한 할 수 있다. 또 검색된 텍스트 내용을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¹⁶⁾ 이미지영상 검색시스템은 색인어(key word)를 ASCII코드 값으로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검색구축방법은 수작업으로 하거나 기존의 서지사항이나 초록 등이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으면 자동색인으로 키워드를 추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고문헌에 적용된 정보검색시스템의 경우를 보면, 조선왕조실록은 한글과 한문으로 된 원문의 내용을 Key-in하여 구축하고, 이들 내용을 연대목차, 단어검색, 항목분류색인으로 접근하게 하고, 이 세가지 검색방법은 개별적인 기능을 수행하지만 관련 텍스트간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과 성균관대학교의 도서관시스템은 원문을 이지지로 입력하여 원문의 검색보다는 원문의 참조와 복사를 할 수 있는 데에 그쳤다.

6. 고문헌 정보시스템의 사례

15) 시소러스란 ISO정의를 보면, 구조적인 면에서는 상위개념의 용어와 하위개념의 용어를 의미문적으로 밝힌 어휘집이며, 기능적인 면에서는 색인자 또는 정보이용자가 자연언어를 통제언어로 변환하는 데 사용하는 어휘집이다. 시소러스를 자동색인 기법으로 추출하는 것에는 통계적인 기법, 언어학적기법, 문헌구조적인 기법이 있다.

16) 김옥란, IRS(Information Retrieval System)기술을 이용한 전문(Full-text)DB시스템의 자연어 검색기법, 한국과일링 주취, Digital Library 시스템구축기술 세미나, 1996, PP. 41-43.

〈그림 3〉 국내학술자료 화상정보 서비스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 및 운영환경



6. 1 국립중앙도서관 국내학술자료 화상정보 서비스 시스템

국립중앙도서관의 화상정보 서비스 시스템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도서에 대한 목록 정보 및 화상정보를 Web 서버의 형태로 저장, 관리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Web서버는 사용자가 URL(Uniform Resource Locator)에 의해 요구하는 자료를 직접 전송해주거나 CGI(Common Gateway Interface) 프로그램을 통해 검색시스템과 접속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검색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이용자에게 HTML 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이들 서비스를 위한 하드웨어의 구성 및 운영환경을 보면 <그림 3>과 같다.

서비스되는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한 약 55만건의 도서목록 자료에 대한 서지사항과 200종의 주요 학술자료에 대한 원문 화상 정보이다. 이중 고문헌은 목록정보 6만건과 50건에 대한 [서지사항], [해제], [목차], [페이지별 화상정보]가 시범 구축되었고, 1997년내에는 귀중본 3,000건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중 목록정보 6만건은 단행본 포맷에 의해 구축되었으므로 KORMARC 고서용기술규칙과 고서용포맷이 KS화되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1997년내에 구축되는 3,000건의 원문 이미지 데이터는 모두 귀중본이어서 이중 연구되거나 공개성을 요하는 것이 외에는 공개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문헌의 화상자료는 스캐너가 이

미지로 읽을 때는 200dpi의 핏셀수준을 적용하였고, 저장은 Tiff G4 Fax방식으로 압축저장하였다. 따라서 이용자는 Tiff파일의 열람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Web Browser의 External Viewer로 연결하여 실행시키면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의 시범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Tiff파일을 열람할 수 있는 별도의 전용 External Viewer를 따로 공급하므로 이를 다운로드받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서 검색시스템은 [서지사항], [해제], [목차], [페이지별화상정보]의 검색이 가능하다. [서지사항]의 검색메뉴에는 자료구분(일반도서, 학위논문, 고서), 서명, 서명 단어, 저자명, 발행자, 주제어(1983년 이후자료만), 분류구분(KDC, DDC, KDCP), 분류기호, ISBN, 발행연도의 10개사항으로 찾을 수 있게 하고, 서명, 서명 단어, 저자명, 발행자, 주제어, 분류기호는 조합검색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필드내에서는 불리안 연산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검색결과에 해당자료가 있으면, 간략정보화면이 나타나고, 검색된 결과의 리스트를 10건 단위로 보여주며, 상세목록정보는 간략정보화면에서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제목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볼 수 있다. 검색된 자료의 데이터는 KORMARC 형식으로 보여주는 KORMARC 데이터 화면이 있다. 이어 [해제], [목차], [페이지별화상정보]로 들어 갈 수 있고, [페이지별화상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화상 뷰어 프로그램의 기능이 있어서 이미지 파

일내의 페이지사이를 이동하며 볼 수 있고, 화상의 크기를 조절하여 출력할 수 있다.

6. 2 성균관대학교 고서/고문서 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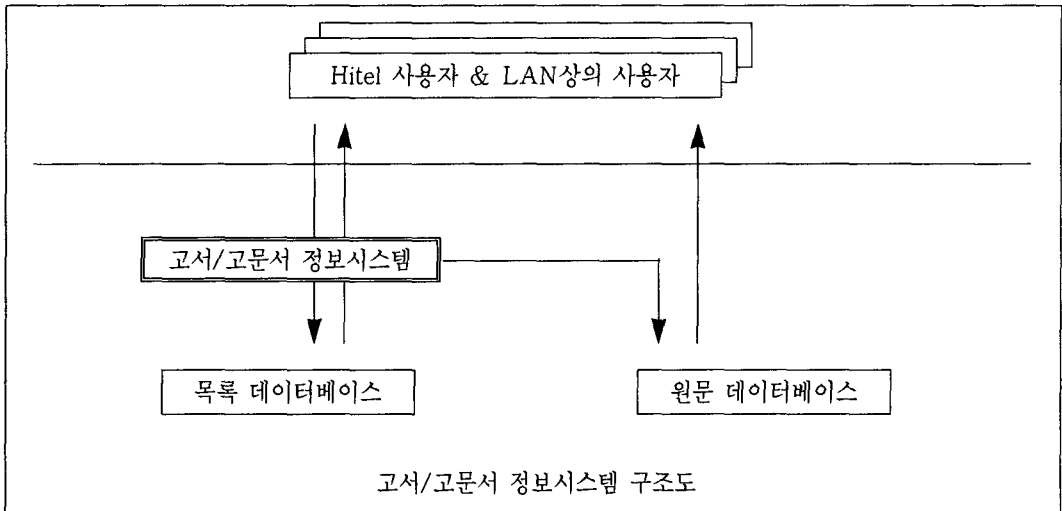
성균관대학교의 고서/고문서 정보시스템은 한국통신이 지원하는 '고서·고문서 정보의 공공 DB개발' 자금에 의하여 1994. 6 - 1995. 12. 20사이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로서 현재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고서 및 고문서의 목록을 열람·검색하고 일부자료에 대하여 원문전송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제정한 고서용 기술규칙과 포맷안에 의한 목록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이 아니고, 성균관대학교 중앙

도서관에서 발간한 고서목록을 기본으로 하여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컴퓨터는 SUN SPARC center 2000기종을 사용하였고, DBMS는 ORACLE 7.1이 사용되었으며, 광 파일 프로그램은 SFile Server와 JukeBox Management가 활용되었다. 네트워크를 위해 교내는 LAN환경을 구축하였고, 외부는 Hinet-P 56K 전용선을 통신으로 연결하여 일반 PC이용자가 모뎀과 전화선만 연결되어 있으면 Hitel을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고서/고문서 정보시스템이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목록데이터베이스와 원문데이터베이스의 두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졌다. 전자는 고서의 서지사항을 입력한 서지파일과 이를 탐색하기위한 검색프로그램이 들어있는 두 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후자는 고서원문을 광파일

<그림 4> 고서/고문서 정보시스템 구성도



프로그램으로 입력하여 원문으로만 구축된 시스템이다. 이들 시스템구성도는 다음의 <그림 4>와 같다.

위의 <그림 4>에서 목록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입력시스템과 검색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목록데이터베이스는 17개의 서지항목¹⁷⁾을 필드로 정하고 필드내의 타입과 길이를 정하여 입력하도록 하였다. 입력화면을 <그림 5>로 제시하고자 한다.

위와 같이 입력된 데이터들은 분류기호, 서명, 인명, 판종으로 개별검색과 조합검색이 가능하다. 검색화면에는 이들 목록정보 이외에도 서지학용어와 화상정보를 동

시에 띄워서 이용자가 필요에 따라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검색정보의 초기화면과 목록정보의 검색화면을 <그림 6>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검색방식은 메뉴방식의 검색화면이 제시되는 데, 초기메뉴<그림 6-1>에서 목록정보를 보고자 하여 1번을 치면, 목록정보 검색식 화면<그림 6-2>이 나타난다. 분류기호, 서명, 인명, 판종으로 개별 검색이나 조합검색을 하면, 접근요소의 서명중심으로 보여주고, 화면에 제시되는 서지항목들은 일정 길이 이상일 때는 우측 절단기법이 사용된다. 목록검색화면 <그림

<그림 5-1> 목록DB 입력 화면 1

고서/고문서 정보 (목록 DB 입력 1)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 TEL : (02)760-1198				
圖書記號	5 - 5 5							
書 名	60							
編 著 者 1	12	(9)	8	編 著 者 2	12	8		
編 著 者 3	12	6	版 鍾	30				
刊 行 地	20			刊 印 年	30			
卷, 冊 數	4 卷	4 冊	(3 數)	匡 郭	8 半郭 4 × 4 cm			
界 線	6	行 字 數	半葉	12	註	12	黑口	6
魚 尾	22		크 기	4 × 4 cm		裝 訂	8	
被 傳 者	1.	10	9	2.	10	紙 質	6	
F1=도움말 F2=저장 F3=삭제 F4=조회 F5=수정 F6=화면지움 F7=파일명 F10=종료								

17) 17의 필드는 1. 도서기호 2. 서명 3. 저자 4. 편저자 5. 간행지(자) 6. 간행년 7. 권,책 수 8. 광곽 9. 계선 10. 행수 11. 주 12. 후구 13. 어미 14. 크기 15. 장정 16. 피전자 17. 지질 이다.

〈그림 5-2〉 목록DB 입력 화면 2

고서/고문서 정보 (목록 DB 입력 2)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 TEL : (02)760-1198
----- 한페이지 분량의 고서·고문서 텍스트 자료를 입력합니다.	

〈그림 5-3〉 목록DB 입력 화면 3

고서/고문서 정보 (목록 DB 입력 3)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 TEL : (02)760-1198
----- 한페이지 분량의 고서·고문서 텍스트 자료를 입력합니다.	

6-3)은 분류기호의 서명순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그 중에서 姑歸奇譚의 자세한 정보를 보고자 하면 상세검색정보<그림 6-4>를 볼 수 있다.

위의 초기 메뉴<그림 6-1>에서 제시된 서지학용어의 검색은 고서/고문서 정보시

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참조하고자 할 때 각 용어의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 또 화상정보의 검색은 검색한 자료의 내용을 보거나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는 Lan상에서는 telnet 명령으로 도서관시스템(skk600)에 접속하고, 초기화면에서

login ID 및 password를 guest라 입력하면 접속이 완료되고, 외부에서는 일반 통신망을 통하여 Hitel을 접속하면 초기화면에서 2.Hitel 정보세계 → 21.공공DB(전문Ⅱ) → 29. 고서/고문서정보를 선택하면 내용을 보거나 원하는 부분을 팩스를 이용하

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위의 <그림 6-4>의 시스템구성도에서 목록데이터베이스 외에 원문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파일시스템을 이용하여 원문입력을 하되, 입력자료에 대한 기초데이터는 도서

<그림 6-1> 초기 메뉴(TOP)

고서/고문서 정보 (SUJIS) (TOP)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 TEL : (02)760-1198

1. 목록정보 2. 서지학용어 3. 화상정보	
이 DB는 한국통신의 공공 DB 개발자금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번호/명령: h r go x >>	

<그림 6-2> 목록정보 검색식 화면

고서/고문서 정보 (SUJIS) (TOP)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 TEL : (02)760-1198				

===== 입력방법 =====					
1. 검색어 입력은 한글과 영문만 가능합니다.[한문입력 불가능] 2. 국문서명의 경우 현대어로도 검색하십시오. [예 : 조웅전 => 조용전] 3. 검색입력 예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分類記號 : D03B</td> </tr> <tr> <td style="padding: 2px;">書 名 : 계원필경집</td> </tr> <tr> <td style="padding: 2px;">人 名 : 최치원</td> </tr> <tr> <td style="padding: 2px;">版 鍾 : 초주정리자판</td> </tr> </table>		分類記號 : D03B	書 名 : 계원필경집	人 名 : 최치원	版 鍾 : 초주정리자판
分類記號 : D03B					
書 名 : 계원필경집					
人 名 : 최치원					
版 鍾 : 초주정리자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分類記號 : _____</td> </tr> <tr> <td style="padding: 2px;">書 名 : _____</td> </tr> <tr> <td style="padding: 2px;">人 名 : _____</td> </tr> <tr> <td style="padding: 2px;">版 鍾 : _____</td> </tr> </table>		分類記號 : _____	書 名 : _____	人 名 : _____	版 鍾 : _____
分類記號 : _____					
書 名 : _____					
人 名 : _____					
版 鍾 : _____					
검색하시겠습니까?(Y/N) : []					

검색어 입력화면에서 4가지 항목(분류기호, 서명, 인명, 판종)의 데이터를 입력받아 논리합으로 검색한다.

<그림 6-3> 목록정보 검색(List) 화면

고서/구문서 정보 (SUJIS) (TOP)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 TEL : (02)760-1198	
[番號]	[分類記號]	[書名]	[人名]	[版種]	[刊印年]
1	D07C -0001	姑婦奇譚	鄭秋齊	新鉛活字版	1915刊
2	D07C -0002	九雲夢	金萬重	木版	1916刊
3	D07C -0003	歸田쇄記	梁章鉅	木版	淸道光25(184
4	D07C -0004	今古奇觀	[抱甕老人]	木版	淸道光21(189
5	D07C -0004a	今古奇觀	[抱甕老人]	木版	[淸祖後期]刊
.
.
.

번호/명령: h p t m f b n a g o r x l s c n(분류표) l b(분류) l t(서명) l a(인명)
>>

서명은 16Byte, 저자사항(제1저자 생몰년포함)은 12Byte, 판종은 12Byte, 간행년은 10Byte까지 보여주고 우측절단한다.

<그림 6-4> 목록정보 검색(Text) 화면

고서/고문서 정보 (SUJIS) (TOP)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 TEL : (02)760-1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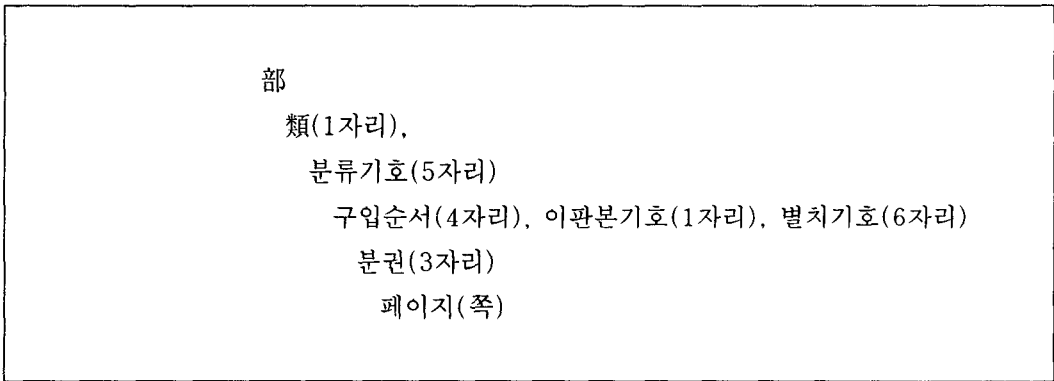
圖書記號	: D07C - 0001		
書名	: 姑婦奇譚		
編著者	鄭秋齊	傳稿	
	:		
版種	: 新鉛活字版		
刊行者	: 京城, 辛亥吟社		
刊印年	: 1915刊		
形態事項	: 0卷 1冊 0張		
	: 四周雙邊 半郭 17.5 x 11.7 cm 無界		
	: 半葉 13行28字 註雙行 _____		
	: _____ 21.6 x 15.4 cm		
	: 線裝 洋紙		
被傳者	:		
명령: h p t m f b n a g o r x			
>>			

기호, 서명, 저자명을 입력하였다. 고서는 현대 문헌과 같이 페이지 단위로 되어 있지 않아 매 권마다 새로운 쪽번호를 부여하고, 쪽번호는 원본의 기록과 관계없이 현상태의 물리적인 순서로 하였다.

원문 입력의 TREE 구조는 여섯 단계로 나누었다(그림 7).

고서는 또한 모든 자료의 열람이 불가능하므로 이용의 제한을 두기 위하여 각각의 자료와 이용자에게 등급을 부여하여, 이용자는 자기등급 이하 등급의 자료만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예를 들면, 3등급으로 분류된 이용자는 3등급 이하의 자료에만 접근이 허용되도록 하였고, 원문 출

〈그림 7〉 원문입력의 TREE구조



력시에는 고유의 로고가 미리 인쇄된 특수 용지를 사용하여 누출된 정보의 무단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구축된 원문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검색시스템의 화상정보(그림 3-1) 초기메뉴의 3에 접근하면 이용자가 원하는 부분의 자료를 바로 출력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7. 평가와 전망

도서관에서 새로운 고문헌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그것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비조건을 파악하고, 기존

에 구축된 시스템의 평가를 통하여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의 구비조건으로는 소프트웨어, 색인, 자료등록, 데이터입력, 정보제공, 데이터베이스 운용 등의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라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선정인 데, 도서관에서는 문헌데이터베이스형의 정보검색시스템 (Information Retrieval System)이 이용된다. 색인은 자연어 방식과 통제어 방식이 있는데, 도서관의 자료규모와 검색 방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음은 자료의 등록체제를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 것인가가 정해야하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입력

항목, 입력양, 입력시간, 인력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입력되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검색의 방법, 검색제공대상, 정보의 보안책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는 데, 이에 는 데이터의 추가, 수정, 삭제, 백업 등의 유지관리와 데이터베이스의 버전업, 시스템 버전업 등의 유지관리도 필요하다.

고문헌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하는 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서정보시스템에 기초하여 개발하면, 인적·물적자원의 절감, 국립중앙도서관에서의 시스템지원, 국가 고문헌 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개발, 연구에의 참여, 서지정보교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고문헌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전망할 수 있는 몇가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목록작업의 전산화를 통해 한국 고문헌의 총체적인 규모가 밝혀지게 될 것이고, 고문헌의 연구도 다각도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목록 및 원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으로 그 이용이 용이하게 됨으로서 주제별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가능해지고 각 방면의 개념정리와 학문체계의 구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국내를 비롯한 국외와의 연구 교류가 활발해지고, 특히 동양학의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

넷째, 해제, 표점, 주석, 영인, 번역, 색인 등의 작업이 새로운 방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8. 결 론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고문헌의 개념은 정의해 보면, 고서, 고문서, 필적으로 대별화 된다. 이들 자료에 대한 책자형목록이 1970년부터 1997년 현재까지 이루어져 왔다. 서울은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도서관, 한국정신문화연구원도서관, 국회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를 비롯하여 건국대학교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중앙도서관, 동국대학교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중앙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도서관 등이 목록을 완성하거나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지방은 계명대학교도서관, 안동대학교도서관 등이 목록을 자체적으로 완성하였다. 목록 작업이 총체적인 규모로 진행된 것은 국학자료보존회와 문화재관리국이 주도하는 한국전적종합목록의 작업이었다. 전자의 경우는 1974년부터 1978년 사이에 개인소장가가 지니고 있는 목록을 조사하여 완성하였고, 후자의 경우는 1986년부터 1997년까지 전국적인 규모로 진행되어 9집까지 발행되었다.

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산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기관을 중심으로 각 기관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일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일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관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전산망중 도서관망의 중심이고, 한국본에 대해 전산화의 기술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고서에 대해서도 1998년 봄에는 고서용포맷과 기술규칙을 KS로 제정할 예정에 있고, 일부자료는 화상정보서비스시스템을 개발하여 웹을 통한 목록, 해제, 원문정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고문헌의 전산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도서관 정보전산망 추진체계도에 의거하되, 위의 책자형목록을 발간한 도서관을 회원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문헌의 목록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각 자료별로 그 성격에 맞는 기술규칙과 MARC의 구조설계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단행본은 기술규칙과 포맷이 제정되었으나 고문서와 筆跡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여기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고서는 ISBD(M)의 원리를 준용하여 변형 수정하여 사용하되, 고서가 지니는 자료적인 특성을 지녀야 함으로 서명, 저자, 간사사항, 형태, 주기사항에서의 구비여건이 필요하다.

고문헌의 원문시스템을 Full-text DB로 구축하는 경우 한문과 한글 옛글자가 많아서 입력을 위한 선행작업으로서 문자의 표준화와 변환 소프트웨어의 지원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아직도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전산 한자의 통합운동은 1988년

4월 ISO IEC /SC2 / WG2가 결성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중일 삼국은 CJK/JRG라는 국제회의 조직을 결성하여 삼국의 한자를 기본문자기판(Basic Multi-Lingual Plane)에 통합형식으로 배치하고자 하였다. 1990이래 12차례나 회의를 거듭하였다. 이러한 노력하에 1993년에 드디어 CJK 통합한자세트 20,902를 편성하여 국제표준문자코드집이 국제표준으로 선포되었다. 이중 한국 한자는 KS C 5601과 KS C 5657의 7,744자가 수록되었다. 이중 중출자 268자를 빼면 7,476자이다. 최근에 와서는 보완용 한자세트 2,287자와 추가한자세트 1,836자를 더 추록하고자 노력하여 모두 17,244자를 표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중 보완용 한자세트가 1996년 8월12일 캐나다의 퀘벡회의에서 투표용초안(pDAM=Proposed Draft Amendment)으로 접수되었다. 퀘벡회의 이후의 국제분위기는 완성형시스템으로는 5만자가 넘는 한문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조합형 한자안을 검토하고 있는 추세이다. 모든 문헌을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인력의 투자가 있어야 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OCR 소프트웨어의 인식율을 높여 중국한문, 일본어, 한국어를 모두 이미지로 읽어들여 아스키 코드로 변환하는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다.(다니엘텍 회사의 MY-ORDER PERFECT FOR WINDOWS의 한국보급판) 그러나, 국내에서는 원문 이미지 정보로 구축되고 있고 그의 압축과 전송을 위한 방법로서는 저장량이 크기는 하나

해상도가 좋은 TIFF방식을 따르는 추세이다.

검색정보시스템은 온라인열람목록시스템(OPAC), 텍스트검색시스템, 이미지영상검색시스템으로 구축될 수 있는 데, 고문헌에 적용된 정보시스템의 경우를 보면, 조선왕조실록은 한글과 한문으로 된 원문의 내용을 Key-in하여 구축하고, 이들 내용을 연대목차, 단어검색, 항목분류색인으로 접근하게 하고, 이 세가지 검색방법은 개별적인 기능을 수행하지만 관련 텍스트간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과 성균관대학교의 도서관시스템은 원문을 이지지로 입력하여 원문의 검색보다는 원문을 참조와 복사를 할 수 있는 데에 그쳤다.

시스템의 구축사례를 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소장도서에 대한 목록 정보 및 화상정보를 Web 서버의 형태로 저장, 관리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Web서버는 사용자가 URL에 의해 요구하는 자료를 직접

전송해주거나 CGI프로그램을 통해 검색시스템과 접속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검색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이용자에게 HTML 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성균관대학교의 고서/고문서 정보시스템은 한국통신이 지원하는 '고서·고문서정보의 공공 DB개발' 자문에 의하여 1994.6-1995.12.20사이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로서 현재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고서 및 고문서의 목록을 열람·검색하고 일부자료에 대하여 원문전송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고서를 소장하고 있는 곳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시스템을 참고하되, 도서관의 소프트웨어, 색인, 자료등록, 데이터입력, 정보제공, 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등의 사항을 평가하여 고문헌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고, 이의 구축을 통해 전망할 수 있는 것은 한국 고문헌의 총체적인 규모 파악, 주제별 DB의 구축, 국내외 연구 교류 촉진, 정리의 새로운 방향 설정등이 가능해 질 것이다.